

01. ③ 02. ② 03. ① 04. ⑤ 05. ② 06. ② 07. ① 08. ③ 09. ⑤ 10. ④
 11. ② 12. ② 13. ③ 14. ⑤ 15. ③ 16. ④ 17. ① 18. ⑤ 19. ⑤ 20. ④

1. 메타 윤리학에 대한 실천 윤리학의 입장 파악

정답 해설 : 제시문의 ‘나’는 실천 윤리학의 입장이고, ‘일부 윤리학자들’은 메타 윤리학의 입장이다. 메타 윤리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나 도덕 추론의 정당성 분석에 중점을 둔다. 실천 윤리학의 입장에서 볼 때 메타 윤리학은 현실의 도덕 문제에 윤리 이론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메타 윤리학은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에 대한 탐구를 강조한다.
- ② 도덕 판단의 근거가 되는 규범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론 윤리학이다.
- ④ 도덕 현상에 대한 객관적 서술과 인과 관계의 설명을 강조하는 것은 기술 윤리학이다.
- ⑤ 메타 윤리학은 도덕 추론의 논리적 분석이 윤리학의 핵심 과제라고 본다.

2. 유교 사상과 도가 사상의 입장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유교 사상가인 공자, 을은 도가 사상가인 노자이다. 공자는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남에게 미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서(恕)’를 강조하면서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공자는 사회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내면적 도덕성인 인(仁)과 외면적 규범인 예(禮)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위적인 규범에서 벗어나 무위를 추구할 것을 강조한 사상가는 노자이다.
- ③ 노자는 예를 혼란의 시초라고 보고, 예법에 대해 반대하였다. 직분과 지위에 따른 예법을 강조한 사상가는 공자이다.
- ④ 노자는 시비선악이 인간의 그릇된 인식과 가치관일 뿐이며, 도의 관점에서 보면 천지 만물은 상대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 ⑤ 공자는 인(仁)을 강조하였지만 친소(親疏)의 구별이 있는 사랑을 강조하였고, 노자는 인(仁)과 의(義)를 대도(大道)가 사라져서 나타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모든 사람에 대한 차별 없는 사랑을 강조한 사상가는 묵자이다.

3. 시민 불복종에 대한 롤스의 입장 파악

정답 해설 :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롤스이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헌법과 사회제도 일반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 지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개인의 도덕 원칙이나 종교적 신념이 아닌 사회적 다수에 의해 공유된 정의관에 근거해야 한다고 보았다.

③ 롤스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의 시민은 정의로운 체제를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지므로, 부정의한 법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현저하게 위배하지 않는 한 그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보았다.

④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합법적인 정치적 반대가 실패한 후 최후의 수단으로 시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⑤ 롤스는 헌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제정된 법이더라도 부정의할 수 있으므로 그 부정의의 정도에 따라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4. 국제 관계에 대한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국제 관계에 대한 현실주의를 대표하는 모겐소, 을은 이상주의를 대표하는 칸트이다. 칸트는 어떤 이방인이 다른 나라의 영토에 도착했을 때 평화적으로 행동한다는 조건을 지킨다면 적대적으로 대우받지 않을 환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ㄷ). 모겐소는 국가 간의 세력 균형을 통해, 칸트는 영구 평화를 위한 예비 조항과 확정 조항을 통해 국제 사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ㄹ). **정답 ⑤**

[오답피하기]

ㄱ. 모겐소는 국제 정치의 본질을 국가 간의 권력 투쟁, 즉 국력 경쟁이라고 보고, 국가 간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더라도 불안정성으로 인해 국력 경쟁이 종식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ㄴ. 칸트는 평화 조약이 모든 전쟁을 영원히 종식시킬 수는 없지만 평화 조약을 맺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전쟁은 종식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5. 공리주의적 접근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공리주의를 대표하는 벤담의 주장이다. 벤담은 쾌락을 산출하고 고통을 피하는 결과를 낳는 행위를 선(善)이라고 보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벤담은 <문제 상황> 속 A에게 탑승자와 보행자의 고통의 총합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하라는 조언을 제시할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칸트의 입장에서 제시할 조언이다. 칸트는 그 자체로 선한 의지, 즉 선의지의 지배를 받는 행위를 도덕적 행위로 보았다.

③ 벤담에 따르면 유용성의 산출은 모든 이해 당사자의 쾌락과 고통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은 유용성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

④ 칸트의 입장에서 제시할 조언이다. 칸트는 인간의 인격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정언 명령을 강조하였다.

⑤ 벤담은 사회적 관습에 내재한 선을 강조하지 않았다. 사회적 관습에 내재한 선을 강조한 사상가는 덕 윤리를 주장한 매킨타이어이다.

6. 삶과 죽음에 대한 장자의 입장 파악

정답 해설 : 제시문은 도가 사상가인 장자의 주장이다. 장자는 삶과 죽음이 기(氣)가 모이고 흩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삶에 얽매이지도 말고 죽음을 걱정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보았다(ㄱ). 장자에 따르면 삶과 죽음은 계절의 변화처럼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과정이다(ㄷ). 정답 ②

[오답피하기]

- ㄴ. 장자는 인의예지(仁義禮智)와 같은 인위적인 규범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 ㄷ. 죽음을 윤회의 일부로 보고, 현생의 업보가 죽음 이후의 내생을 결정한다고 보는 사상은 불교이다.

7. 사랑과 성의 관계에 대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비교

정답 해설 : (가)는 타인에게 해악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성인들의 자발적 동의에 따른 성적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보는 자유주의 입장이다. (나)는 성적 관계가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를 전제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에 정당화된다고 보는 보수주의 입장이다.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은 '성의 가치를 감각적 쾌락에서 찾는 정도(X)'는 낮고, '성행위의 전제로서 사랑을 강조하는 정도(Y)'와 '사회적 관점에서 성행위에 수반될 책임을 강조하는 정도(Z)'는 높다. 그러므로 ㉠이 정답이 된다. 정답 ①

8. 정약용이 강조할 공직자의 자세 파악

정답 해설 :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정약용은 목민관이 백성의 정당한 수익을 빼앗으면 민생고가 심해진다고 보았다. 정약용의 입장에서 볼 때 공직자는 납품을 받는 과정에서 생산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정약용은 애민의 기본을 청렴이라고 보고, 청렴하기 위해서는 절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② 정약용은 청렴을 목민관의 근본적인 의무이며, 모든 덕의 근원이라고 보았다. 정약용의 입장에서 볼 때 공직자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얻으려면 청렴해야 한다.
- ④ 정약용은 목민관이 집안을 바로잡아야 청탁과 뇌물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보고, 작은 선물이라도 경계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⑤ 정약용은 목민관이 청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치밀해야 하며, 백성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면서도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9. 형벌에 대한 칸트, 베카리아, 루소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가)의 값은 칸트, 을은 베카리아, 병은 루소이다. 베카리아는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능을 기꺼이 사회에 양도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다고 보았다. 반면에 루소는 사회 계약의 목적이 계약자의 생명 보존이며, 타인의 희생으로 자신의 생

명을 보존하려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 필요하다면 자신도 생명을 희생해야 한다고 보았다(ㄴ). 베카리아는 형벌이 범죄가 공익에 반하는 정도와 범죄로 이끄는 유혹에 비례하여 가해져야 한다고 보았다(ㄷ). 루소는 사회 계약의 위반자는 국가로부터 추방되거나 공공의 적으로 사형에 처해져 제거되어야 한다고 보고, 계약자의 생명이 국가로부터 조건부적으로 보장된다고 보았다(ㄹ). **정답 ⑤**

[오답피하기]

ㄱ. 칸트, 베카리아, 루소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칸트는 ‘동등성의 원리’, 베카리아는 ‘공리의 원리’, 루소는 ‘사회계약의 원리’를 정의의 기초가 되는 원리로 삼아 형벌을 가해야 한다고 보았다.

10. 노직과 롤스의 정의관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노직, 을은 롤스이다. 롤스는 차등의 원칙이 호혜성의 입장을 표현한 것이며, 모든 성원을 고려한 상호 이익의 원칙이라고 보았다(ㄴ). 노직은 개인에게 천부적 자산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다고 보았으며, 롤스는 천부적 자산 자체와 천부적 자산의 분포를 구분하면서 천부적 자산의 분포는 공유 자산으로 간주되지만 천부적 자산 자체에 대한 권한은 개인에게 있다고 보았다(ㄹ). **정답 ④**

[오답피하기]

ㄱ. 노직은 도덕적 공과에 따른 분배는 정형적 원리에 의한 분배이므로 소유 권리를 침해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보았다.
ㄷ. 롤스에 따르면 기본적 자유는 다른 기본적 자유와 상충할 때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이지 않다.

11. 유전적 간섭에 대한 하버마스의 입장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적극적인 유전적 간섭을 추구하는 자유주의적 우생학을 비판한 하버마스의 주장이다. 하버마스는 유전적 간섭이 치료라는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ㄱ). 하버마스에 따르면 인간의 유전적 자연성은 개개인이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 주체가 되기 위한 근본적인 조건이다(ㄷ). **정답 ②**

[오답피하기]

ㄴ. 하버마스는 자유주의 우생학이 배아의 사물화를 초래하고, 인간이 도덕 주체가 되기 위한 근본 조건을 뒤흔들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ㄹ. 하버마스는 부모의 적극적인 유전적 간섭으로 태어난 자녀는 스스로를 자기 삶의 유일한 저자이자 다른 사람들과 평등한 주체로서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고 보았다.

12. 요나스의 책임 윤리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책임 윤리를 강조한 요나스의 주장이다. 요나스는 인간이 과학 기술의 힘으로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보고, 과학 기술의 결과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인간이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요나스는 인간이 가진 권력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넓어질수록 인간이 져야 하는 책임의 범위도 넓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 ③ 요나스는 희망보다는 공포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위협으로부터 책임을 도출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④ 요나스는 현세대가 책임져야 할 대상에 권리를 주장하는 현세대뿐만 아니라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자연과 미래 세대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 ⑤ 요나스는 인간만이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보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당위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13. 사이버 공간에서의 윤리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된 신문 칼럼은 사이버 공간에서도 윤리와 책임 의식이 요구됨을 강조하고 있다. 신문 칼럼은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으로 인해 허위 정보나 유해 정보가 유포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고 본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신문 칼럼은 사이버 공간의 참여자가 책임 있는 존재로 활동해야 함을 주장함으로써 현실 세계에서처럼 사이버 공간에서도 윤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 ② 신문 칼럼은 사이버 공간의 참여자를 정보의 소비뿐 아니라 유통과 생산에도 적극 참여하는 주체라고 본다.
- ④ 신문 칼럼은 사이버 공간에서 허위 정보나 유해 정보의 생산자는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 ⑤ 신문 칼럼은 잘못된 정보의 희생자가 되지 않으려면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 즉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14. 테일러, 칸트, 레건의 환경 윤리 비교

정답 해설 : (가)의 값은 생명 중심주의를 대표하는 테일러, 을은 인간 중심주의를 대표하는 칸트, 병은 동물 중심주의를 대표하는 레건이다. 칸트는 동물이 인간의 가치 평가에 의한 수단적 가치만을 지닌다고 보았다. 반면에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가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으며, 레건은 삶의 주체인 동물은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ㄴ). 테일러는 쾌고 감수 능력과 무관하게 모든 생명체가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고 보았으며, 칸트는 이성 능력만이 도덕적 지위를 결정하는 조건이라고 보았다. 반면에 레건은 쾌고 감수 능력을 삶의 주체로서의 도덕적 지위를 결정하는 필요조건이라고 보았다(ㄷ). 테일러는 고유한 선을 지니는 생명체를 인간이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며, 레건은 삶의 주체인 동물들의 권리를 인간이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반면에 칸트는 자연이나 동물에 대한 의무는 인간의 도덕적 완성을 위해 요청되는 간접적 의무일 뿐이며 이성적 존재인 인간 상호 간의 의무만이 직접적 의무라고 보았다. 따라서 칸트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의무로 환원되지 않는 의무는 없다(ㄹ). **정답 ⑤**
[오답피하기]

ㄱ. 테일러, 칸트, 레건의 공통 입장이다. 테일러는 생명을 지닌 모든 개체가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보았다. 칸트는 이성 능력을 지닌 존재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보았는데, 이성 능력을 지닌다는 것은 생명을 지녔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레건은 삶의 주체가 되는 동물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보았는데,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지각, 믿음, 기억, 쾌고 감수 능력 등을 지녀야 하므로 당연히 생명을 지녀야 한다고 볼 수 있다.

15. 국가와 시민의 관계에 대한 홉스와 로크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홉스, 을은 로크이다. 로크는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비교적 평화로운 삶을 누리지만 생명, 자유, 재산을 더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공동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정치적 본성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국가 상태에 들어간다고 본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홉스는 공통의 권력이 없어 혼란스러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회 계약을 맺으면서 국가가 수립되었다고 보았다.
- ② 홉스는 국가가 모든 사람의 동의하에 부여받은 통치 권력을 공공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④ 로크는 국가 권력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가는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 ⑤ 홉스와 로크는 모두 국가에 대한 시민의 의무가 국가가 시민의 생명권을 보호해 준다는 조건 아래에서 계속될 수 있다고 보았다. 홉스는 국가가 시민의 생명권을 침해할 경우 시민에게 저항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으며, 로크는 국가가 시민의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경우 시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16. 거주에 대한 볼노브의 입장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볼노브이다. 볼노브는 인간의 참다운 삶을 위한 거주는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쏟아부어 온전히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단순히 거주 공간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참다운 인간의 삶을 실현할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볼노브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편안함의 영역으로서의 거주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② 볼노브에 따르면 거주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쏟아부어 온전히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다.
- ③ 볼노브에 따르면 집은 인간이 사는 체험 공간의 구체적인 중심이자 개인이 활동하

는 세계의 중심이다.

⑤ 볼노브에 따르면 인간은 거주를 통해 위협적인 외부 세계로부터 도피하여 안정을 얻을 수 있다.

17. 종교에 대한 엘리아데의 입장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엘리아데이다. 엘리아데는 성스러운 돌, 성스러운 나무는 성스러움의 드러남, 즉 성현(聖顯)이기 때문에 숭배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세계는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대상이지만 성(聖) 그 자체는 아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엘리아데는 성스러움과 세속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일상적인 삶 자체가 언제든 성현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③ 엘리아데에 따르면 세계는 신의 손으로 완성되어 성스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종교적 인간은 세속적 대상에서도 성스러움을 체험할 수 있다.

④ 엘리아데는 종교적 인간에게 자연은 종교적 의미로 충만해 있으며, 돌이나 나무 또한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성현으로서 숭배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엘리아데에 따르면 신은 자신이 창조한 자연을 통해 성스러움을 다양한 양태로 드러내어 보여 준다.

18. 음악에 대한 순자와 묵자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가상 편지에서 ‘당신’은 순자이고, ‘나’는 묵자이다. 순자는 선왕이 제정한 음악으로 사람의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 마음과 행동을 올바르게 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달리 묵자는 악기 제조와 연주로 인해 백성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게 되고, 백성이 먹고 입을 재물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므로 음악을 금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묵자의 입장에서 볼 때 순자의 견해는 음악을 장려하는 것이 백성들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음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순자는 음악과 예의의 조화를 통해 사회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보았다.

② 순자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교화하여 화합하는 데 음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③ 순자는 간사하고 사악한 음악은 천하를 혼란에 빠지게 하므로 선왕이 제정한 음악으로 백성을 이끌어야 한다고 보았다.

④ 순자는 선왕이 제정한 음악을 통해 백성의 악한 본성이 변화되고 마음과 행동이 올바르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음악이 이상적 공동체를 구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19. 원조에 대한 롤스, 싱어, 노직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가)의 갑은 롤스, 을은 싱어, 병은 노직이다. 롤스는 원조의 목적을 고통 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게끔 함으로써 질서 정연한 국제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이에 비해 노직은 원조를 윤리적 의무가 아니라 개인의 자율적 선택의 문제라고 보았다. 따라서 롤스는 노직에게 원조를 통해 원조 대상국이 자국의 부정의를 교정하여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롤스는 원조의 중단 지점, 즉 차단점을 설정하여 원조 대상국이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어 원조 목적이 실현된다면 더 이상 원조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 ② 싱어는 원조 대상을 선정할 때 원조 대상국이 상대적 빈곤에 처했는지, 절대적 빈곤에 처했는지 따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③ 싱어는 효용성을 고려할 때 자신의 이웃을 먼저 돕는 것이 정당한 경우가 있다고 보았다.
- ④ 노직은 원조를 개인의 자율적 선택의 문제로 보므로 자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보았다.

20. 남북한 종전 선언에 대한 토론의 핵심 쟁점 파악

정답 해설 : 제시문의 갑은 종전 선언으로 남북 교류가 확대될 수 있지만 북한의 대남 적대 정책은 유지될 것이므로 종전 선언이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을은 종전 선언이 북한만을 위한 시혜는 아니므로 상호주의의 대상이 아니며, 종전 선언이 정전 상태를 명분으로 핵을 개발한다는 북한의 입장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종전 선언은 상호주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가 토론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갑, 을 모두 북한이 현재 대남 적대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보므로 토론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없다.
- ② 갑, 을 모두 분단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므로 토론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없다.
- ③ 갑, 을 모두 종전 선언을 통해 남북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므로 토론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없다.
- ⑤ 갑, 을 모두 현재의 한반도 상황이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정전 상태라고 보므로 토론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없다.